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정치평론: 『時事新報』 創刊年(1882)의 평론을 중심으로

다카시로 코이치(高城 幸一)
아주대학교

◆ 논문 요약 ◆

본 논문은 후쿠자와 유키치의 사상을 정치평론적 관점에서 해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명치유신 후의 일본사회는 기존의 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지배 질서가 확립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명치정부와 일본국민에게 명확한 비전과 지침을 준 사람이 바로 후쿠자와이다. 본 논문은 후쿠자와가 상당한 의미에서 정치평론가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왈짜가 강조한 비판적 거리두기를 잘 견지하면서도 일본정부와 국민과의 사

회적 연결을 유지함으로써 특정한 사회에 잘 적용하는 고유한 이해(local understanding)에 도달하려고 노력했다. 둘째, 본 논문은 근대시민사회초기의 정치평론가로서 활동한 후쿠자와와의 한계를 지적한다. 그는 목적을 우선시한 반면 토론의 풍부한 내용을 살리지는 못했다.

※ 주제어: 후쿠자와 유키치, 명치유신, 정치평론, 사회평론, 왈짜

I. 서론

일본 근대화의 역사적 기점은 明治維新(1868)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명치유신을 통해 본격적인 근대국가로 출발했다. 당시 일본은 국가의 독립을 달성하고 서양문명의 도입을 통해 근대국가를 건설해야만 하는 긴급한 과제를 안고 있었다. 비록 명치유신에 의해 오래된 신분제 질서는 붕괴되었지만, 아직 그에 대신할 새로운 지배 질서는 완성되지 않았으며, 신정부 지도자는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때에 명치정부와 일본국민에게 명확한 비전과 지침을 준 이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¹⁾이다. 그는 세 차례나 幕府의 구미

1) 후쿠자와 유키치는 1835년 1월 10일(陰曆 天保5년 12월 12일) 하급무사의 다섯 형제 중의 막내로 오사카(大阪)에서 태어났고, 1901(明治34)년 2월 3일 근대문명의 위대한 지도자로 애도를 받으면서 동경에서 사망했다. 특히 그의 사망에 대해 일본 국회(衆議院)는 깊은 애도의 뜻을 표명했다(小泉信三, 『福澤諭吉』, 岩波新書, 東京: 岩波書店, 1966, p.3.). 그가 살았

사절단²⁾의 일원으로 서구에 파견되었고, 자신이 직접 서구세계를 보고 경험한 것과 서구의 책을 통해 학습한 것을 토대로 『西洋事情』, 『學問のすずめ』(학문의 권장), 『文明論之概略』 등을 저술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명치정부와 일본국민에게 명확한 비전과 지침을 주고 신일본 건설의 토대가 될 구미문명을 도입, 보급하고 국민 속에 깊이 뿌리내린 봉건 의식을 타파하고자 했다. 특히 후쿠자와는 『文明論之概略』에서 일본근대화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했다.³⁾

후쿠자와는 일생동안 재야에서 일본의 명문 사립대학교인 慶應義塾을 경영했다. 그리고 봉건적 사상, 특히 유교에 대한 비판⁴⁾과 다수의 계몽적인 저작을 통해서 관료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교육과 저술활동 이외에도 『民間雜誌』, 『家庭叢談』 등의 잡지와 『時事新報』라는 일간지를 창간하였고, 일반 대중들의 계몽에도 노력했다. 그는 명치정부의 대외강경책을 강력하게 지지하였고, 조선의 개화와 김옥균등에도 영향을 주었다. 현재에도 후쿠자와의 영향력은 일본의 만연권에 그의 초상화가 새겨져 있을 정도로 지대하고, 慶應義塾을 통해서 일본 국민과 유학생, 그리고 일본과 관계하는 여러 나라의 국민들에게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후쿠자와는 "서양문명을 도입함으로써 일본인 개인의 능력과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력을 높이고 일본의 독립을 확보하는"⁵⁾ 것을 평생의 과업으로 삼았다. 이것이 그를 근대 문명의 지도자로서 주목받게 한 큰 요인이다.⁶⁾

본 논문의 목적은 '政治評論'적 관점에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자신이 주재하는 일간지인 『時事新報』⁷⁾에 발표한 '논설'을 분석·검토하고, 그의 '정치평

던 19세기 후반은 일본 역사의 대 전환기에 해당된다. 즉 미국의 Matthew C. Perry 提督의 내항(1853)에 의한 개국의 강요, 명치유신(1868), 대일본제국 헌법 반포(1889), 일청전쟁(1894-95)등 일본의 진로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였다.

2) 幕府의 遣美使節團(1860년), 幕府의 遣歐使節團(1861-62년), 幕府가 주문한 군함을 받으러 가는 遣美使節團(1867)의 일원으로서 세 번의 구미시찰의 경험이 있다.

3) 上掲書, p. 48.

4) 후쿠자와는 일본이 서구근대문명을 도입하여 문명 개화 사업을 통해서 근대적인 신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구습을 (후쿠자와의 말로 표현한다면) '清掃破壞' 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토대로 새로운 체제를 '建置經營'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오래된 가치관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유교(특히 주자학) 가치관에 기반한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서양 근대과학을 토대로 한 새로운 가치관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유교비판이 불가피했다.

5) 鹿野政直著, 『福澤諭吉』(東京: 清水書院, 1967), pp. 3-4.

6) 小泉信三, 『福澤諭吉の『文明論之概略』』, 『心』 第80號(東京: 平凡社, 1955), p. 52.

7) 『時事新報』는 후쿠자와가 창간한 신문이다. 1882(明治15)년 3월 1일에 창간된 이후 1936(昭和11)년 12월 25일 『東京日日新聞』에 합병됨으로써 폐간되었다. 명치초기의 신문은 정치중심의 대신문과 사회면중심의 소신문으로 대별되며, 대신문에는 정부의 의향을 대변하는 어용신문과 자유민권을 주장하는 신문(自由黨系과 改進黨系)으로 구분되는데, 『時事新

론'의 내용과 특징을 파악하는 데 있다. 특히 본 논문은 그의 '논설문'을 Walzer가 말하는 '평론'의 의미로 이해하고자 한다.

여기서 Michael Walzer의 '사회평론(social criticism)'에 관한 논의를 잠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Walzer는 '사회평론'을 하나의 '사회적 실천'으로 이해하면서⁸⁾ '외재적 평론(external criticism)'(p.69.)과 '내재적 평론(internal criticism 또는 immanent critique)'을 구분한다. '내재적 평론'에 필요한 것은 사회 내부의 특정한 권력관계에서 멀리 떨어질 것을 요구한다. 즉 '내재적 평론'은 사회 안에 남아 있으면서도 비판적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사회 내부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수행되는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외재적 논평(발견과 발명)'은 '현실로부터 철저히 거리를 두는 태도(radical detachment)'에 입각한 비판이다. 이런 태도는 감정면에 있어 초연(detached)하고, 공평무사(disinterested)하고, 냉정(dispassionate)한 태도를, 지성면에 있어 편견 없는 객관적 태도를 취한다.(p.36.) 그러나 Walzer는 '현실로부터 철저히 거리를 두는 태도'는 '사회평론'의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사회와의 연결을 결여한 평론(disconnected criticism)'은 가치조작과 강제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p.64.)

Walzer는 올바른 '사회평론'으로서 '내재적 평론(immanent critique)'(p.64.)을 강조한다. '내재적 평론'은 '사회적 연결(social connection)'(p.69.)을 유지하면서 그 '지역에 고유한 이해(local understanding)'(p.65.)를 필요로 한다. '사회적 연결'은 '감정적 유대(sentimental ties)'(p.62.)를 가지고 '공유(common possession)'(p.32.)라는 관념을 유지한다. '사회와 연결된 평론가(a connected critic)'는 '지금 여기서 사회와 연결된 평론'을 하게 된다.(p.78.) '정치평론'은 '사회와 연결된 평론가(a connected critic)'가 정치에 관해서 평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치평론'은 '정치적 내재주의'에 입각한 평론이라고 할 수 있다.

報는 '不偏不黨'의 슬로건을 내걸고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지켰다고 평가 받고 있다. 이 신문은 주장만이 아니라 보도를 중요시했고, 1892(明治25)년에 로이터통신과 통신독점계약을 체결했다. 경제기사에 충실한 것이 明治, 大正시대를 통해서 이 신문의 특징이었다. 후쿠자와가 스스로 논설을 썼으며, 회사의 경영은 조카인 나카카미카와 히코지로(中上川彦次郎)가 담당했다. 明治中期 이후 大正末期까지는 일본을 대표하는 신문의 하나였으나, 1923(大正12)년의 관동대지진로 사옥이 소실된 후 쇠퇴하였고, 1936년에는 폐간되었다.

8) Michael Walzer, *Interpretation and Social Criticism*(Cambridge &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p.vii.

9) '정치적 내재주의'에 대해 김홍우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정치 문제의 해결을 정치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또한 가장 바람직한 정치의 가능성을 정치 이외의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민주주의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 역시 민주주의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만일 정치 문제의 해결을 정치 외적인 데서 구하거나 또는 민주

이상과 같은 '정치평론'의 관점에서 후쿠자와를 본다면, 과연 그를 '정치평론가'로 볼 수 있을까? '정치평론(political criticism)'의 특성으로 '진실성', '대중성' 그리고 '내재성'이라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다.¹⁰⁾ 우선 '내재성'에 관해서, 우리는 후쿠자와가 명치유신 이후 시종일관해서 재야의 입장을 지키며, Walzer가 강조한 '비판적 거리두기(critical distance)'를 잘 견지하면서도 일본정부와 국민과의 '사회적 연결(social connection)'을 유지함으로써 특정한 사회의 '지역에 고유한 이해(local understanding)'에 도달하려고 노력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¹¹⁾ 이런 점에서 보면 후쿠자와의 평론은 '내재성'을 가진 평론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그의 여러 저작은 간단한 구어체로 표현했기 때문에 대중의 인기를 얻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후쿠자와는 '대중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진실성'이 사실에 입각한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라면, 후쿠자와는 김옥균 등 조선의 개화파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또는 조선의 개항장에 일본 상사의 주재원으로 파견된 제자들을 마치 『時事新報』의 특파원처럼 활용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후쿠자와는 '진실성'을 위해 노력한 정치평론가였다고 말할 수 있다.

'정치평론'은 상대방에 향해서 'speak out'하는 'dynamic process'이자 'purposive action'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연구방법으로서 첫째, 후쿠자와는 일본 국내정치를 어떻게(how) 보고 표현했는가, 둘째, 후쿠자와가 일본 국내정치를 평론하는 의도와 목적(purpose) 또는 목표(goal)는 무엇인가, 셋째, 후쿠자와의 '정치평론'과 elite(특히 정부관계자) 및 일반 국민과의 'interaction'(상호 영향)의 여부와 정도(일반국민과의 상호 영향을 검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요신문의 논편을 분석 대상으로 하겠다), 넷째, 후쿠자와가 일본 국내정치에 대한 평론을 전개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혹은 그의 평론의 의도와 목적(purpose) 또는 목표(goal)를 달성(result or achievement)했는가를 중

주의 문제의 해결을 민주주의 밖에서 찾을 경우, 이것은 약한 정치 또는 약한 민주주의를 초래하게 된다. 반면 정치 문제의 해결을 정치 내에서 찾을 경우, 강한 정치 또는 강한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김홍우 저, 『현상학과 정치학』(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9년 10월), pp.720-721.)

10) 김대영, 「정치평론과 민주적 공론장: Koestler, Orwell, Lippman에 관한 비교연구」(서울대학교 정치학박사 학위논문, 2002년 8월), pp.178-280.

11) 그 당시 국민의 가치관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유교적 가치관이였다. 후쿠자와는 심한 유교비판을 하면서도 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또는 유교적 고전에 나오는 일화를 예로 들면서 새로운 서양문명의 본질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간결하고 쉬운 구어체로 표현했다. (米原謙(2003): 「일본에서의 문명개화론: 후쿠자와 유키치와 나카에 쇼민을 중심으로」 『동양정치사상사』 제2권 2호(韓國·東洋政治思想史學會, 2003년 9월), pp.209-227.)

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慶應義塾編, 『福澤諭吉全集』(全21卷)(東京: 岩波書店, 1958-1964)을 텍스트로 사용한다. 텍스트에서 인용할 경우 ①, 36)와 같이 표기하며, 그것은 『福澤諭吉全集』 第1卷 p.36.에서 인용한 것을 의미한다.

Ⅱ. 『時事新報』 創刊의 배경과 당시의 정치상황

『時事新報』는 1882(明治15)년 3월 1일에 창간되었다. 이후 후쿠자와의 조선관련 논설은 『時事新報』의 사설로 발표되었다. 후쿠자와는 명치 13년 말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로부터 정부를 위한 신문을 발행해달라는 비공식적 요청을 받았지만, 그것을 일단 거절하였다. 이들로으로부터 정부가 국회 개설을 준비하고 있으니, 국민의 정치교육을 위한 신문이 필요하다는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정부를 위한 신문의 발행을 결심했다. 그는 게이오의숙 관계자를 중심으로 신문발행 준비에 착수했다. 그러나 신문을 발행하기 전에 이토 히로부미, 이노우에 카오루, 오쿠마 시게노부 사이에 불화가 생겼고, 동시에 훗가이도 개척사 관유물의 매각에 관한 소송이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후쿠자와가 오쿠마와 미쯔비시회사의 소유주인 이와사키 야다로와 연맹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다는 호소문이 제출되어, 오쿠마와 후쿠자와와 연류된 사람들이 일제히 정부에서 쫓겨난 이른바 '명치 14년 정변'(명치 14년 10월)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정부를 위한 신문 발행이 물거품으로 되었다. 후쿠자와는 단독으로 신문 발행을 결심했고, 이렇게 탄생한 것이 『時事新報』이다. 이와같은 이유 때문에 『時事新報』는 정치와 거리를 두었고 어떤 정당의 편도 들지 않으면서 중립을 지켰다.

明治 14(1881)년에 정부내부에서 『開設問題』 등을 둘러싼 政變이 일어났다. 1879년-80년에 自由民權派에 의한 國會開設運動이 고조하는 가운데, 政府는 國會開設의 구상만들기에 들어가고, 政府관계자의 意見を 구했다. 그것에 응하여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는 早期 國會開設(1883년)과 英國型 政黨政治의 실현을 내용으로 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것에 대해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등은 漸進論의 입장에서 반대했다. 右大臣인 이와쿠라 토모미(岩倉具視)는 프로이센型的 君權主義의 憲法の 制定을 주장하는 이노우에 코와시(井上毅) 起草의 意見書를 政府에 제출했다. 政府內에서는 岩倉·伊藤·黒田 등 薩長藩閥(薩摩(사쓰마)藩과 長州(조슈)藩을 중심으로 한 藩閥)을 중심으로 한 保守派와 大隈가

대립했다.

더 나아가서 同年 7~8月, 開拓使 官有物 민간매각 사건¹²⁾을 둘러싸고 그것을 추진하는 쿠로다 교타카(黒田清隆)와 반대하는 오쿠마가 대립했다. 國會開設問題를 둘러싼 노선대립에다 관유물 민간매각 사건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고조되자 그것에 大隈가 관련되고 있다고 본 岩倉·伊藤·黒田 등 薩長藩閥을 중심으로 한 保守派는 明治 14(1881)年 10月, 開拓使 官有物 민간매각의 중지를 결정함과 더불어 大隈를 정부에서 추방했다. 그와 동시에 明治 23(1890)년에 국회를 개설한다는 취지의 詔書가 공포되고, 民權運動에 대한 一定한 讓步를 보여주었다. 이 政變을 계기로 政府 主導에 의한 프로이센型 立憲政治 實現의 움직임이 활발화되었다. 이 정변에서, 후쿠자와系的 官僚들은 大隈와 관련된다고 해서 政府 部處에서 추방되었다. 그러므로 후쿠자와와 政府와의 튼튼한 연결망이 단절되었다.

Ⅲ. 『時事新報』 창간년(1882)의 후쿠자와의 정치평론

『時事新報』發行 당시의 일본의 정국은 민간의 정치의식이 고조되던 시기였다. 왜냐하면 명치정부는 국회를 1890(明治 23)년에 개설할 것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정당결성의 움직임이 빈번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정부 내에서는 이런 풍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수구반동적인 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정치적으로는 입헌제정당이라고 칭하는 수구극단적인 관권론자들이 정당을 조직하여 전국적으로 유세하고, 어용신문을 이용하여 민간의 정당을 공격했다. 교육정책적으로는 유교주의를 장려하여 漢學과 복고주의를 부활하고 이것을 통해 청소년의 사상을 선도하고 사회 인심을 진정시키려 하였다. 후쿠자와는 이런 경향을 우려하여 『時事新報』의 논설을 통해 관민조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帝政黨 일파의 極端不勤愼한 언동을 비판했으며, 유교주의의 부활에 대해서는 교육의 기본방침을 서양 과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방법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³⁾

후쿠자와는 『時事新報』 창간 당시의 국내정치상황에 대해서 “일본 전국 朝野 鄙鄙의 구별없이 함께 정당론에 대한 토의가 활발해져 마치 정당의 깃발 아래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정치사회에 선 사람이라는 世評이 있을 정도”였다

12) 北海道開拓使 官有物 민간매각 사건: 政府가 총액1490萬円여를 투자한 北海道開拓使의 官有物을 北海道開拓使長官인 쿠로다 교타카(黒田清隆)는 같은 薩摩閥인 고다이 토모야쓰(五代友厚)에게 단지 38萬 7千円 무이자 30年 할부로 매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된 사건을 말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大隈系의 新聞이 발표했다.

13) 全8, 『後記』(富田正文), pp.673-674.

고 회고한다.¹⁴⁾ 후쿠자와는 明治政府는 원래 改進黨의 방침이었지만, 민권운동의 고양에 직면하여 전래의 방침을 바꾸고, 보수적으로 되었다고 인식한다.

후쿠자와는 「本紙發兌之趣旨」(1882[明治15]年3月1日, ⑧, 5-10)에서, 『時事新報』의 命名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 이름을 時事新報라고 지은 것은 주로 近時의 문명을 기록하고, 그 문명으로 가는 方略事項을 논하여, 日新의 풍조에 뒤지지 않게 하여, 세상에 報道하려고 하는 취지이다”고 한다(全8, p.7.). 더 나아가서 후쿠자와는 “우리 일본국의 독립을 중요시하여, 畢生의 목적, 단지 國權의 一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친구이고, 그 목적에 반대하는 자는 간접적이나 직접적으로 모두 우리의 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中略). 國會論者를 친구로 삼아 그 반대자를 적으로 삼을 뿐”이라고 자기의 입장을 설명한다(全8, p.8.). 더불어 “단지 나의 主義로 하는 것은 一身一家의 독립을 확대하여 일국의 독립으로 확대하려는 정신으로서 이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 한 현재의 정부이든, 세상의 많은 정당이든 여러 工商의 會社이든, 여러 학지의 집회 등 그 상대를 가리지 않고 다 친구로서 도와주고, 그에 반대하는 자는 상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적으로 삼아 배척할 뿐”이라고 주장한다(全8, p.10.). 이런 주장은 3월 6일자 的의 논설에서도 “나는 원래 시사를 논하여 정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나의 主義는 純正히 建置經營의 뜻으로 세상의 누구와 관계하는 바는 없고, 단지 나의 주의에 반하는 자를 적으로 삼고, 나의 主義에 동의하는 자는 친구로 삼을 뿐”이라고 반복해서 주장한다.¹⁵⁾

후쿠자와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일행이 1주일 후에 헌법소사를 위해서 독일로 출발할 예정인 것을 전하여, “작년 10월에 국회개설의 칙명을 내린 후에 朝野 함께 준비를 한다는 말이 있고, 이번에 參議(伊藤-필자)의 독일행도 헌법 소사를 위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국회개설) 준비를 위한 것 같다. 현재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다”고 말한다.(全8, p.10.) 그리고 이토 일행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參議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은, 단지 독일에 있는 憲法 조문의 死文을 볼 것이 아니라, 그 憲法이 독일 국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잘 시찰하여, 文面에는 이렇게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시행되고 있다는 상황을 견문하여, 또는 文面과 실체가 서로 상이한 원인을 탐색하여, 이 법령을 어떤 나라에 채용하면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를 추구하는 일에 있다”고 당부한다.(全8, p.12.)¹⁶⁾

후쿠자와는 명치 23년의 국회 개설을 염두에 두고 정부와 민간이 그것에 대한 대응에만 신경을 쓰는 것을 비판하면서, 8년 후의 일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14) 「時事新報の本色」(1882[明治15]年12月29日, ⑧, 472-476), p.472.

15) 「一種變則の讒言」(1882[明治15]年3月6日, 全8, pp.17-18.), p.18.

16) 「伊藤參議を餞す」(1882[明治15]年3月2日, 全8, pp.10-13.)

‘一國大計의 기본’을 정하고 정권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부에 당부하였다. 여기서 후쿠자와는 현재의 일본의 육해군력을 가지고서는 국내 치안의 유지에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외국과의 전쟁에서는 일본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한다. 더 나아가 후쿠자와는 “오늘이라도 지나와의 갈등이 생기고 내일에 조선에 일이 발생하며, 일본이 지나를 공격할 때도, 조선을 원호할 때도 우선 필요한 것은 우리 병사들을 중국과 조선 땅에 상륙시키는 것이다. 이때 우리 육군은 중국의 400여 쵸를 유린하기에 충분한가, 또한 소약한 조선국을 원호하여 강대한 외적을 물리치기에 충분한가, 나는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다”¹⁷⁾라고 언급하면서 육해군의 군비를 당장 정비할 것을 강력히 정부에 요청했다.

후쿠자와는 1882(明治15)년 4월에 간행되는 『時事大勢論』¹⁸⁾에서 다음과 같이 논한다:

이후 王政維新(명치유신-필자)의 變革을 맞이하여 인심도 역시 일신하여, 그러므로 민권의 설이 아주 유행하여 정부도 뜻을 그 방향에 맞춰, 舊慣을 掃除破壞하여 문벌을 폐지하여, 드디어 廢藩置縣의 大舉를 일으켜, 조세도 공평을 목표로 하여, 법률도 정직을 주로하여, 기타 백방의 政務를 옛날과 비교하면 하나라도 국민의 인권에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없다. (중략) 明治 8, 9년 경에 들어서 掃除破壞의 일도 겨우 끝나고, (지금)은 관민 함께 무사한 것을 지겨워하는 것과 같다. (全5, 238)

후쿠자와는 이상과 같이 논하고, “10年 이내로 반드시 (국회를) 개설한다는 조서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민정이 불평하는 것은 실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하면서, 관민 간의 대립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심해져 가는 것에 불만을 표시한다. (全5, 244) 후쿠자와는 관민의 조화를 기다리지 않고 국회를 개설하려 하는 것은 치열한 당파싸움이 될 우려가 있다고 걱정한다. (全5, 252) 그러므로 후쿠자와는 다음과 같이 논한다:

방금 우리 일본도 해외의 제강국과 대치하여, 마치 文武의 鏘(창을) 맞대(고) 세계중에서 싸우려고 하는 때이다. 이 중요한 시기에 무엇이 가장 긴요한 것일까, 마치 전국을 한 집과 같이 조화하여, 그 전 힘을 하나의 정부로 집중시키고, 우선 정권을 강대하게 하여 국권 皇張(擴張-필자)의 길로 진행시키는 일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의 기운으로

17) 「政府何ぞ奮て大に進まざるや」(정부는 왜 분발해서 크게 진행하지 않은가?) (1882[明治15]년3월 3일, 全8, 13-15), p.14.

18) 「時事大勢論」①(4/5)~⑥(4/14)(全5, 233-255)(明治 15(1882)년 4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 6번에 걸쳐서 사실로 발표한 것을 4월말에 단행본으로 출판한 것. 앞으로 논설문로 취급할 때는 「時事大勢論」으로, 단행본로서 취급할 때는 「時事大勢論」으로 표시하겠다.)

서 앞으로 數年の 형세를 상상하면, 정권을 강대하게 하여 국권을 皇張할 전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간신히 천하의 안녕을 유지하는 일조차 보증할 수 없다.(奎5, 253)

후쿠자와는 3월 7일부터 6월 17일에 걸쳐 「藩閥寡人政府論」라는 17편의 장편 논설을 게재한다. 거기서 후쿠자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寡人政府는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專制政治의 기층에서 벗어나 나라 전체의 인민에게 참정권이 있는 이상, 國政의 방향은 국민 다수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운운”은 “현재 일본국 전체의 政談者의 通論”이고, “작년 10월에 國會開設의 칙명을 받은 후” 국민이 아주 기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즉 “국회를 개설하면 寡人政府를 바꾸어 多數政治로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¹⁹⁾ 더 나아가 후쿠자와는 “필경 내가 원하는 목적은 政權을 강화하는 1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의 일본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국회를 열어 이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⁰⁾

후쿠자와는 民權論者에 대해서, “나도 지금의 民權論者의 개개인에 대해서 본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적지 않다.”고 말하여 구체적으로는 ‘性急論者’의 생각이 아주 성급한 점을 지적한다.²¹⁾ 더불어 정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그 방침이 일정하지 않는 것을 비난한다. “寡人政府의 폐해는 施政의 主義가 일정하지 않는 것에 있다. 앞에서 기재한 民權論을 수용 못하는 것도 정부내에서의 일부분의 생각이고, 전체의 생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 정부에 있는 사람들 개개인에 대해서 사적으로 시사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대부분이 自由改進黨의 사람인 것 같다. 이 自由改進黨의 사람들이 모이는 정부는 반드시 自由改進黨주의가 아니다. 때로는 아주 자유인 것 같이 보인다. 법률을 개량하여 형법을 가볍게 하고, 府縣의회를 열어 民議를 채택하는 것이 그것이다. 때로는 부자유인 것 같이 보인다. 人民의 집회 또는 저술신문지에 대한 법률을 만드는 것이 그 예이다. 혹은 일시적인 부자유에서 주유로 이행하면서 부자유인 것이 있다. 文部省의 學制가 3, 5년으로 變革하는 것이 그것이다. 인심의 변천이 빠른 지금 사회에 있어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主義가 일정한 정부에서도 百年 뒤를 염두해두고 시행되었다고는 보기가 어렵다”.²²⁾ 이와같이 말하여 “政府를 위해서 정권 확장을 하기에 불리한 것이 있다. 그것은 寡人政府의 主義가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관리의 기가 약해져 과감하게 처리할 용기를 잃어 관용의 도량이 부족할 우려가 있다”. 그것이 “官民不調和”를 초

19) 「藩閥寡人政府論」 ①(1882[明治15]年 5月 17日, ⑧, 111-114), p.111.

20) 「藩閥寡人政府論」 ④(1882[明治15]年 5月 23日, ⑧, 119-122), pp.121-122.

21) 「藩閥寡人政府論」 ⑦(1882[明治15]年 5月 29日, ⑧, 128-130), p.128.

22) 「藩閥寡人政府論」 ⑧(1882[明治15]年 5月 31日, ⑧, 130-133), pp.130-131.

래한다고 강조한다.(131-132)

후쿠자와는 “民權論자가 지방 각지에 출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을 규탄할 일은 아니지만, 민권론자들의 거동에는 내가 수용못하는 일이 있다”고 5월 31일의 논설에서 民權論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구체적으로는 民權論者는 국회를 열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政治社會 밖으로 추방하는 의도가 아니냐 아주 의심스럽다”고 의문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가령 外面에서는 정치의 主義를 말하여 나의 主義에 동의하는 자는 官民을 가리지 않고 나의 政友이라고 공언하지만, 내면에서 가리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아주 의심스럽다”고 의문을 제시하여 “만약에 그 내심에 한 점의 적의를 가질 때는 그것이 자연적으로 상대방에 전달된다. 그것이 전달되면 상대방도 적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쌍방이 서로 의심을 가질 때는 서로가 주장하는 주의는 같아도 도저히 일치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主義가 같은 자들이 서로 의심하여 대립하는 것은 천하의 불행이자 서로에게 불리한 일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정부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나는 정부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런 태도야말로 진짜 민권론자이다”라고 民權論者에게 관용한 태도를 가질 것을 요망한다.²³⁾

그 한편으로 후쿠자와는 “近來 정부가 시행하는 일은 결코 평온한 일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政策이 뛰어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 정책이 여유가 있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 정책이 長者의 考案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정부의 여유가 없는 태도를 비판한다. 그리고 政府와 民權論者가 “서로 조화한 다음 일을 해야 한다고 각오하여, 그 조화의 길을 연 다음에 일을 처리하는 것이 민권론자를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요망한다. 후쿠자와는 만약에 官民이 조화되지 않고 현재와 같은 대립상태가 계속하면 쟁론은 조그만 일까지 미치고 서로가 원망하는 원인이 되고, 그것이 쌓여서 해결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결국 “단지 정부의 운동을 부자유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그런 구체적 예로서 “府縣廳은 地方의 事務를 시행하려고 하여 그 예산안을 府縣議會에 제출하면 의회는 그것을 절감하려 하여 自由自在로 의결하기 때문에 실제의 사정을 보면, 지방의 도로제방, 경찰, 학교의 일 등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더 심한 것은 어떤 縣議會에서는 일절 지방예산을 지출하지 않겠다고 의결한 곳도 있다”고 열거하여, “아주 극단적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후쿠자와는 이런 상태에서는 “國會開設의 일은 어떻게 될까”라고 國會開設에 대해서 우려한다. 그리고 民權論者에 대해서 “論者도 진실로 현재의 寡人政府의 인사들을 정치사회 밖으로 추방할 뜻이 없으면 그들과 合併調和하여 일치단결을 하여 寡人政府를 바꾸고, 多人政

23) 「藩閥寡人政府論」⑨(1882[明治15]年 6月 1日, ⑧, 133-135), pp.133-134.

府로 하면 明治의 美事가 아닌가”라고 政府와의 일치단결의 필요성을 호소한다.²⁴⁾

후쿠자와는 6월 6일자 논설에서 明治維新 以來 일본의 문명을 급진시킨 것은 정부이고, 민권론의 고양도 정부의 처치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처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民議를 받아들이는 것에 있다”고 강조한다.²⁵⁾ 더 나아가 다음 7일의 논설에서 “작년 10월의 국회개설 칙령을 받아 현재까지 이미 7개월이 지났다. 이 사이에 官民의 알력은 줄었을까, 늘었을까. 나는 유감스럽게도 그 알력이 조금 늘었어도 줄어든 것은 없다고 본다”라고 현 상태에 불만을 제기한다.²⁶⁾

후쿠자와는 6월 15일의 논설에서 “지금 관민부조화는 정부가 관민조화를 원하면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길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단지 정부가 정부의 문을 열고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뿐이다”라고 말하며, 국회개설은 明治 23년이기 때문에 그 개설 전에 관민조화를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정부에게 民權論者를 등용할 필요성에 대해서 “일본의 인민은 정부가 추측하는 것과 같이 단지 정치에 열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열중하는 자들을 정부내로 받아들여 함께 内外의 정치에 대해서 논의하여 같이 일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나라 전체에 정치가가 많다고 해도 수백명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들 중에는 유능한 자도 많고 또는 명치유신당시에 함께 정부에 있었던 자도 있고, 지금 정부에 있는 자들과 함께 명치유신을 일으킨 자도 있다”라고 그 유용성을 지적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寡人政府를 개선하여 多人政府로 바꾸는 것”이라고 그 의의를 강조한다.²⁷⁾ 더 나아가 다음 16일의 논설에서도 “정부는 크게 문을 열고 많은 사람을 받아들여 정부를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나라 전체의 정치가를 망라하여 정부내에 모으면 천하의 유지자중에서 한 일없이 불만을 가진 자를 볼 수 없게 된다. 사회의不善은 한 일없는 사람들의 불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不善도 생기지 않는다”라고 그 의의를 강조한다.²⁸⁾ 더욱이 다음 17일의 논설에서도 “지금 급한 것은 관민을 조화하는 방편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단지 정부의 문을 열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을 뿐”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한다.²⁹⁾

후쿠자와는 자신이 지금의 정치사회의 상황을 보면 “유신 이래 문벌을 폐지하여 구습을 타파하고, 파괴의 일도 현재 이미 끝났다고 할 수 있다. 파괴가 이미 끝났

24) 「藩閥寡人政府論」⑩(1882(明治15)年 6月 2日, ⑧, 135-138), pp.136-138.

25) 「藩閥寡人政府論」⑪(1882(明治15)年 6月 6日, ⑧, 138-141)

26) 「藩閥寡人政府論」⑫(1882(明治15)年 6月 7日, ⑧, 141-144), p.144.

27) 「藩閥寡人政府論」⑬(1882(明治15)年 6月 15日, ⑧, 151-154), pp.153-154.

28) 「藩閥寡人政府論」⑭(1882(明治15)年 6月 16日, ⑧, 154-156), p.154.

29) 「藩閥寡人政府論」⑮(1882(明治15)年 6月 17日, ⑧, 156-160), p.156.

다면 앞으로는 建置經營의 방향으로 가야한다. 새롭게 문명의 사물을 건립, 설치하여 향후의 진로를 경영하려고 할 때, 먼저 필요한 것은 사회안녕의 일이다”고 하여, 지금 시국에서는 관민이 조화하여 함께 시국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후쿠자와는 建置經營의 발단으로서 「藩閥寡人政府論」을 『時事新報』에 게재했지만, 이 논설의 게재가 시작되어 중간쯤부터 民權論者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정부의 反對黨이라 할 수 있는 民權論者들로부터의 공격을 받고 있는 와중에, 같은 달 8일에 政府로부터 신문 발행정지처분을 받았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후쿠자와는 자신의 논지는 단지 사회의 조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民權家로부터 질책을 받고 이번에는 정부로부터 질책을 받아 당혹스럽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회의 建置經營을 하기 위해서는 官民調和論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결심을 말한다.³⁰⁾

후쿠자와는 6월 24일자 논설에서도 반복해서 “官민의 알력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민권론자들에게 정부의 지위를 부러워하는 마음을 없애는 것에 있다”고 말하여 “지금 사회의 구조상 名利가 있는 것은 단지 정부뿐인 것 같다”, “도저히 인민이 정부의 지위를 부러워하는 기간동안은 관민의 알력이 끝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정부가 무력으로 민권론자를 탄압하려고 결심할 경우 일시적으로는 탄압할 수 있을지라도, 무력행사로는 표면적으로 탄압할 수 있어도 그 마음을 억제할 수는 없다”고 말하여, 정부에게 民權論者를 등용하는 것이 무난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한다.³¹⁾

더 나아가 6월 28일자와 7월 7일의 논설에서 “西洋諸國에 있어서는 정치사회 밖에 지위가 많기 때문에 人心이 정부직만 원하지는 않는다. 人心이 정치에만 모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싸움이 전국적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우리 일본에서는 정치사회에 안정한 지위를 만들어 그 지위에 만족하는 자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도저히 지금과 같은 政談의 파도를 진정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³²⁾ 계속해서 후쿠자와는 “西洋諸國이 상공의 별천지를 열어, 스스로 利福를 받은 자가 많기 때문에 정부의 지위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약하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상공의 구역은 아직 낮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정부에게로 옮기려 하고, 정부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깊게 하는 것은 經國의 大計에 배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³³⁾ 더 나아가 7월 8일자의 논설에서 후쿠자와는 “지금 이 時勢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幕政의 옛날로 되돌아 가려는 것은 아니다. 단지 문명개화를 추진하여 이익사회의 조직을 확대하여 文學技藝를 부흥해서 政治社會 밖으로 독립시키고,

30) 「時事新報發行解停」(1882[明治15]年 6月 13日, ⑧, 160-163)

31) 「時勢問答」②(1882[明治15]年 6月 24日, ⑧, 184-186), pp.184-185.

32) 「時勢問答」③(1882[明治15]年 6月 28日, ⑧, 186-189), pp.188-189.

33) 「時勢問答」⑦(1882[明治15]年 7月 7日, ⑧, 195-198), pp.197-198.

志士들이 머물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는 일 뿐이다”라고 정치사회 이외로 志士들의 활약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한다.³⁴⁾

후쿠자와는 7월 19일자의 논설에서 “근래 정치의 議論이 세상에 활발하여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재야에 있어서 정당 단결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施政의 방침을 정하고, 그것을 공포하여 실시하고 사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고 政局에 대한 소감을 말한다. 더 나아가 “길은 두 가지, 仁과 不仁이 있을 뿐이라는 것은 사물의 극단을 말하는 것이지만, 인간의 행동은 반드시 두 가지 양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언행을 견문해도 그 한 가지 국부에 대해서 시비판단을 내리면 안된다. 게다가 자기와 견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은 더욱 신중하게 해야한다”고 이분법적인 극단론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당부한다.³⁵⁾ 이와같은 이분법적인 극단론에 대한 경계는 9월 29일자의 논설에서도 “길은 두 가지, 仁과 不仁이 있을 뿐이라는 것은 옛 성인의 말”이고, 그 의미하는 바는 “사람의 소행은 단지 두 가지 형태가 있을 뿐, 仁이 아니면 반드시 不仁이라고 양극단에 표준을 세워 그 사이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 같다”, “극단주의에 있어서 그 중간 단계를 간과한 것이다”, “仁과 不仁과의 양 극단을 볼 뿐 중간에 있는 넓은 면에 대해서는 눈이 가지 않는다”고 반복된다. 그리고 幕末시대의 攘夷論을 주장했던 현재의 政府가 明治維新以後 開化로 方針을 정하여 積極적으로 西洋文明을 받아들였다. “지금 明治 15년과 같은 일본이 있는 것은 우리 신정부의 선견지명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개진의 선견지명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여 명치정부가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일본 번영을 이루었다고 칭찬한다.³⁶⁾ 더 나아가 9월 30일자 논설에서 후쿠자와는 15년 전에 極端主義를 극복한 선견지명을 가진 현 정부가 극단주의에 빠지는 것은 도저히 남득이 안 간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현재의 정국은 “국민이 官權과 民權의 두 가지로 나뉘져, 官은 忠이다. 民權黨은 不忠이다. 한 쪽은 나라의 양민이고 다른 한쪽은 나라의 亂賊이다. 한쪽은 黨友이고, 한쪽은 우리당의 적이라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언론으로 표현한다”고 지적하여, 이것은 “極端主義의 복귀일 뿐”이라고 의문을 제기한다.³⁷⁾

후쿠자와는 10월 27일자의 「政治의 名分」이라는 논설에서, “君主政治와 國會政治 즉 黨派政治를 서로 비교하면 크게 다른 것이 있다”고 말하여 “君主政治는 國君 한 사람의 의사에 의해 정치를 하여 한 국가를 한 가문과 같이 보는 것이고, 國法을 어기지 않는 한, 전국의 인민 모두가 양민이고, 한 사람도 정부에 반대하는 자

34) 「時勢問答」⑧(1882[明治15]年 7月 8日, ⑧, 198-200), p.198.

35) 「局外窺見」①(1882[明治15]年 7月 19日, ⑧, 216-220), pp.216-218.

36) 「極端主義」①(1882[明治15]年 9月 29日, ⑧, 352-354)

37) 「極端主義」②(1882[明治15]年 9月 30日, ⑧, 355-357), p.355.

는 없다"고 설명한다. 다른 한편 "黨派政治에 있어서 소수당은 여러 면에서 불공평을 받고, 나라 전체가 一視一樣이 되지 않지만, 소수당도 다수당도 그 당내의 단결심은 견고하여, 감정적으로 공감대를 이루고, 때로는 도리를 꺾더라도 반대당을 공격하여 자기당의 인원을 늘려 정권을 장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두 세 개의 黨派가 서로 대치하여 각기 정치상의 주의를 명확히 하여 新聞紙와 演說會에서 黑白相反하여 서로 싸우는 것은 黨派政治의 본질이고, 그것을 명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우리 일본정부를 보면 국회개설의 칙령은 내렸지만, 그 시기는 明治 23년이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는 순수한 君主政治라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럼으로 "一視同仁의 政府로서 그 국민을 볼 때 親疎遠近의 구별이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고 지적하여, 정부의 행위를 보면 마치 '黨派政府'와 같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一視同仁의 政府'로서 행동할 것을 당부한다.³⁸⁾

후쿠자와는 "政治上에 있어서 創業의 정신과 守成의 정신과는 구별이 있다"고 말하여 守成은 "사회의 秩序를 중시하여 정치의 명분을 밝히고, 百事道理에 根據하여 禮儀에 依賴할 것"이라고 설명한다.³⁹⁾ 그리고 지금 일본은 '平安守成 專一의 세상'이라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 "지금은 창업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社會에는 파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없다"라고 강조한다.⁴⁰⁾

후쿠자와는 11월 11일의 논설에서 "나는 현재 국가의 불상사를 예견하여 우려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지금은 소위 官權黨이라고 하는 것은 차차 세력을 확장하여 점점 극단으로 가 결국은 그 성질을 바꾸어 勤王黨이라 이름을 바꾸고, 民權黨도 역시 그 세력을 확대함에 따라 그 자세를 바꿔 드디어 파괴주의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걱정한다. 그리고 兩黨의 勢力關係에 대해서 "官權 勤王黨이 일시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官權黨은 그 主義가 명백하고 그 말이 간단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한다.⁴¹⁾ 즉 "勤王의 제목, 아주 간단명백했기 때문에 일반국민이 받아들이기 쉽다고 말한다"⁴²⁾

府縣廳과의 對決姿勢가 강한 府縣議會에 대한 후쿠자와의 반감이 11월 20일의 「廢縣論」의 논설로서 나타난다. 거기서 후쿠자와는 "10년간의 실험에서 300縣을 70으로 줄이고 다시 40으로 줄여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것은 교통의 편리함과 즉 施政의 편리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정부는 결심하여 府縣을 폐지하여 전국의 민정을 內務의 직할하에 두어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것은 내가 廢縣論을

38) 「政治の名分」①(1882[明治15]年 10月 27日, ⑧, 362-364)

39) 「守成は創業に異なり」①(1882[明治15]年 11月 4日, ⑧, 371-373), p.371.

40) 「守成は創業に異なり」②(1882[明治15]年 11月 6日, ⑧, 373-375), pp.374-375.

41) 「天下憂ふ可きもの二あり」①(1882[明治15]年 11月 11日, ⑧, 378-381), pp.379-380.

42) 「天下憂ふ可きもの二あり」②(1882[明治15]年 11月 13日, ⑧, 381-384), p.381.

주장하는 이유이다”고 주장한다.⁴³⁾ 더 나아가 다음 21일의 논설에서 일본의 관민이 안녕은 府縣廳과 府縣의회와의 알력이 가장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후쿠자와는 “前年 우리정부가 府縣議會를 설립한 것은 官民調和를 하여 상하가 서로 접근하여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여” 서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府縣議會의 목적은 民利를 확대하는 점에 있고, 會議은 단지 그 방편에 지나지 않는데, 현재 실제로는 그와 반대로 議論이 활발하고, 직접 지방 인민에 관계되지 않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인민의 권리에 해가 된다”고 비판한다.⁴⁴⁾ 더 나아가서 후쿠자와는 縣議會를 폐지하는 것은 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여, 縣議會를 폐지하여, 郡區議會를 개설할 것을 제안한다. 후쿠자와는 縣議會를 開設할 때 縣廳과 縣議會의 권한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혼란이 일어났으므로, 郡區議會는 처음부터 郡區廳과 郡區議會와의 權限을 明確히 區分하여 出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⁴⁵⁾

후쿠자와는 11월 25일의 논설에서 “소위 官權論者라는 것은 극단적인 勤王論으로 변하여 후일에 處분에 곤혹할 일이 생길 것이다. 필경 勤王論은 그 논지가 단일하여 무지한 자도 이해하기가 쉽게 때문이다”고 강조한다. 明治維新 때도 험기있는 勤王者를 이용하여 유신의 위업을 달성한 후에는 오히려 그들의 처치에 고민했다는 것을 想起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여 官權論者가 極端論에 빠지지 않게 주의를 당부한다.⁴⁶⁾ 그리고 12월 18일의 논설에서 후쿠자와는 일본도 明治初年에는 서양문명의利器를 도입하여, 舊慣古禮는 모두 파괴하여, 廢藩置縣을 비롯하여 천하의 사물중에서 급변하지 않는 것은 없었지만, 明治 15년의 지금에 와서는, 파괴해야 하는 구물은 모두 파괴하여 현재의 질서를 확립했기 때문에 현재 필요한 것은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⁴⁷⁾

IV. 結 論

明治 14(1881)년 정변때, 明治政府는 明治 23(1890)년에 국회를 개설한다고 약속했다. 그것을 받아 민간에서는 政治熱이 높아지고, 정당의 창설이 활발화하여 民權論者와 정부와의 대립이 깊어졌다. 이와같은 정치의 계절에 『時事新報』가 창

43) 「廢縣論」①(1882[明治15]年 11月 20日, ⑧, 394-397), p.396.

44) 「廢縣論」②(1882[明治15]年 11月 21日, ⑧, 397-400), pp.398-399.

45) 「廢縣論」③(1882[明治15]年 11月 24日, ⑧, 400-402), pp.400-401.

46) 「天下自省す可きものあり」①(1882[明治15]年 11月 25日, ⑧, 402-405), p.403.

47) 「急變論」①(1882[明治15]年 12月 18日, ⑧, 458-461), p.459.

간되었다.

후쿠자와는 이 新聞의 論說을 통해서 첫째, 文明開化를 推進하여 商工業立國으로서 일본을 발전시킬 것, 둘째 官民調和에 따라 정부와 민권론자와의 대립을 해소할 것을 주장한다. 官民調和을 위해서 후쿠자와가 제안한 것은 첫째, 政府는 주요한 民權論者를 정부 요직으로 등용할 것, 둘째, 民權論者는 정부를 공격하는 것을 완화하여 정부와의 협조자세를 가질 것, 셋째, 정부와 민권론자 모두 다 2분법적인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게 주의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정부에 대해서는 여유와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政府의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

후쿠자와는 명치유신 이래의 '掃除破壞'의 시대가 지나고, 현재(明治15年)는 '建置經營'의 시기라고 생각하여, 우선 寡頭政府(후쿠자와의 말로 표현하면 '寡人政府')를 '多人政府'로 교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더 나아가 후쿠자와는 현재 지방정부(府縣廳)와 대립이 깊고 잘 기능되지 않고 있는 府縣議會를 폐지하기 위해서, '廢縣論'을 주장한다. 그리고 府縣議會에 대신하여 郡區議會를 開設하여, 郡區廳과 郡區議會와의 권한의 구분을 명확히 할 것을 주장한다.

우리는 후쿠자와의 정치평론을 통해서 후쿠자와가 정부쪽로부터도 민권론자로부터도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관민조화론을 주장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목적을 우선시하고 토론의 풍부한 내용을 살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후쿠자와는 근대 시민사회 초기의 정치평론가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時事新報』 創刊年(1882) 일본 국내정치에 관한 주요 평론

「本紙發兌之趣旨」(1882(明治15)年 3月 1日, ⑧, 5-10)

「伊藤參議を餞す」(1882(明治15)年 3月 2日, ⑧, 10-13)

「政府何ぞ奮て大に進まざるや」{정부는 왜 분발해서 크게 진행하지 않은가?}
(1882(明治15)年 3月 3日, ⑧, 13-15)

「一種變則の讒言」(1882(明治15)年 3月 6日, ⑧, 17-18)

「條約改正」(1882(明治15)年 3月 7日, ⑧, 20-22)

「時事大勢論」①(4/5)~⑥(4/14)(全5, 233-255)(明治15(1882)년 4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 6번에 걸쳐서 사설로 발표한 것을 4월말에 단행본으로 출판한 것. 앞으로 논설문로 취급할 때는 「時事大勢論」로, 단행본로서 취급할 때는 『時事

大勢論』로 표시하겠다.]

- 「藩閥寡人政府論」①(1882[明治15]年 5月 17日, ⑧, 111-114)
 「藩閥寡人政府論」②(1882[明治15]年 5月 18日, ⑧, 114-116)
 「藩閥寡人政府論」③(1882[明治15]年 5月 22日, ⑧, 116-119)
 「藩閥寡人政府論」④(1882[明治15]年 5月 23日, ⑧, 119-122)
 「藩閥寡人政府論」⑤(1882[明治15]年 5月 25日, ⑧, 122-125)
 「藩閥寡人政府論」⑥(1882[明治15]年 5月 27日, ⑧, 125-127)
 「藩閥寡人政府論」⑦(1882[明治15]年 5月 29日, ⑧, 128-130)
 「藩閥寡人政府論」⑧(1882[明治15]年 5月 31日, ⑧, 130-133)
 「藩閥寡人政府論」⑨(1882[明治15]年 6月 1日, ⑧, 133-135)
 「藩閥寡人政府論」⑩(1882[明治15]年 6月 2日, ⑧, 135-138)
 「藩閥寡人政府論」⑪(1882[明治15]年 6月 6日, ⑧, 138-141)
 「藩閥寡人政府論」⑫(1882[明治15]年 6月 7日, ⑧, 141-144)
 「藩閥寡人政府論」⑬(1882[明治15]年 6月 8日, ⑧, 144-147)
 「藩閥寡人政府論」⑭(1882[明治15]年 6月 14日, ⑧, 148-151)
 「藩閥寡人政府論」⑮(1882[明治15]年 6月 15日, ⑧, 151-154)
 「藩閥寡人政府論」⑯(1882[明治15]年 6月 16日, ⑧, 154-156)
 「藩閥寡人政府論」⑰(1882[明治15]年 6月 17日, ⑧, 156-160)
 「時事新報發行解停」(1882[明治15]年 6月 13日, ⑧, 160-163)
 「時勢問答」①(1882[明治15]年 6月 23日, ⑧, 180-184)
 「時勢問答」②(1882[明治15]年 6月 24日, ⑧, 184-186)
 「時勢問答」③(1882[明治15]年 6月 28日, ⑧, 186-189)
 「時勢問答」④(1882[明治15]年 7月 4日, ⑧, 189-191)
 「時勢問答」⑤(1882[明治15]年 7月 5日, ⑧, 191-193)
 「時勢問答」⑥(1882[明治15]年 7月 6日, ⑧, 193-195)
 「時勢問答」⑦(1882[明治15]年 7月 7日, ⑧, 195-198)
 「時勢問答」⑧(1882[明治15]年 7月 8日, ⑧, 198-200)
 「局外窺見」①(1882[明治15]年 7月 19日, ⑧, 216-220)
 「局外窺見」②(1882[明治15]年 7月 20日, ⑧, 220-222)
 「局外窺見」③(1882[明治15]年 7月 21日, ⑧, 223-224)
 「局外窺見」④(1882[明治15]年 7月 25日, ⑧, 225-227)
 「局外窺見」⑤(1882[明治15]年 7月 26日, ⑧, 227-229)
 「局外窺見」⑥(1882[明治15]年 7月 27日, ⑧, 229-232)
 「局外窺見」⑦(1882[明治15]年 7月 28日, ⑧, 232-234)

- 「局外窺見」⑧(1882[明治15]年 7月 29日, ⑧, 234-237)
- 「極端主義」①(1882[明治15]年 9月 29日, ⑧, 352-354)
- 「極端主義」②(1882[明治15]年 9月 30日, ⑧, 355-357)
- 「政治の名分」①(1882[明治15]年 10月 27日, ⑧, 362-364)
- 「政治の名分」②(1882[明治15]年 10月 28日, ⑧, 364-367)
- 「守成は創業に異なり」①(수성은 창업과 다르다)(11月 4日, ⑧, 371-373)
- 「守成は創業に異なり」②(수성은 창업과 다르다)(11月 6日, ⑧, 373-375)
- 「天下憂ふ可きもの二あり」①(천하에 우려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11月 11日, ⑧, 378-381)
- 「天下憂ふ可きもの二あり」②(천하에 우려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11月 13日, ⑧, 381-384)
- 「極端論」(1882[明治15]年 11月 16日, ⑧, 390-393)
- 「廢縣論」①(1882[明治15]年 11月 20日, ⑧, 394-397)
- 「廢縣論」②(1882[明治15]年 11月 21日, ⑧, 397-400)
- 「廢縣論」③(1882[明治15]年 11月 24日, ⑧, 400-402)
- 「天下自省す可きものあり」①(천하에 자성해야 할 것이 있다)(11月 25日, ⑧, 402-405)
- 「天下自省す可きものあり」②(천하에 자성해야 할 것이 있다)(11月 27日, ⑧, 405-409)
- 「天下自省す可きものあり」③(천하에 자성해야 할 것이 있다)(11月 28日, ⑧, 409-413)
- 「天下自省す可きものあり」④(천하에 자성해야 할 것이 있다)(11月 29日, ⑧, 413-417)
- 「尙自省せざる者あり」{아직 자성하지 않은 자가 있다}(12月 6日, ⑧, 424-426)
- 「急變論」①(1882[明治15]年 12月 18日, ⑧, 458-461)
- 「急變論」②(1882[明治15]年 12月 19日, ⑧, 461-463)
- 「時事新報の本色」(1882[明治15]年 12月 29日, ⑧, 472-476)

〈참 고 문 헌〉

〔1차자료〕

- 慶應義塾編. 1958-1964. 『福澤諭吉全集』全21卷. 東京: 岩波書店.
石河幹明. 1932. 『福澤諭吉傳』全4卷. 東京: 岩波書店.

〔2차자료〕

- 遠山茂樹. 1970. 『福澤諭吉-思想と政治との關聯』.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坂野潤治. 1977. 『明治思想の實像』. 東京: 創文社.
安坂野潤治. 1985b. 『近代日本の外交と政治』. 東京: 研文出版.
廣田昌希. 1976a. 『福澤諭吉研究』.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廣田昌希. 1976b. 『福澤諭吉』(東京: 朝日新聞社)
丸山眞男. 1986abc. 『[文明論之概略]を読む』上中下. 東京: 岩波書店.
安川壽之輔. 1970. 『日本近代教育の思想構造-福澤諭吉の教育思想研究-』. 東京: 新評論社. 初版(1970), 増補版(1979)
安川壽之輔. 2000. 『福澤諭吉のアジア認識』. 東京: 高文研.
金榮作. 2001. 「福澤諭吉, ナショナリスト」. 內田隆三他3名編. 『ネイションの軌跡』. 東京: 新人社. 이 논문은 『社會科學研究』 제14집(2001)(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그대로 일본어로 수록되고 있다. (pp.459-494.)
坂野潤治. 1974. 「『東洋盟主論』と『脱亞入歐論』-明治中期アジア進出論の二類型-」. 佐藤誠三郎. R. デイニングマン編 『近代日本對外態度』.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坂野潤治. 1985a. 「明治政治史における福澤諭吉」內山秀夫編 『150年目の福澤諭吉-虚像から實像へ-』. 東京: 有斐閣.
丸山眞男. 1942. 「福澤諭吉の儒教批判」 『東京帝國大學學術大觀』(『戰中と戰後の間』. 東京: みすず書房. pp.93-115.에 再收錄)
丸山眞男. 1943. 「福澤に於ける秩序と人間」 『三田新聞』第537號. (『戰中と戰後の間』. 東京: みすず書房, 1976, pp.143-146.에 再收錄)
丸山眞男. 1949. 「明治國家の思想」(歷史學研究會編 『日本社會の史的究明』). 東京: 岩波書店.
丸山眞男. 1952. 『福澤諭吉選集』第4卷「解題」. 東京: 岩波書店. pp.395-426.
丸山眞男. 1953. 「福澤諭吉」(平凡社版『世界歷史辭典』第16卷所收)(『戰中と戰後の間』(東京: みすず書房, 1976), pp.562-566.에 再收錄)

[政治評論에 관한 문헌]

Michael Walzer. 1987. *Interpretation and Social Criticism*. Cambridge &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김대영. 2002. 「정치평론과 민주적 공론장-Koestler, Orwell, Lippman에 관한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정치학박사 학위논문.

김대영. 2005. 『공론화와 정치평론 -단힌 사회에서 광장으로』. 서울: 책세상.

김홍우. 1999. 『현상학과 정치철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Political Review of Hukuzawa Yukichi in the Initial Number of Zizishinpou (時事新報: 1882)

Koichi Takashiro

This article has an intention to explicate Hukujawa's thought in the light of political criticism. A new order has not arisen yet, after the Meiji Restoration, which destroyed the previous order. In that situation, it was Hukujawa that gave a definite direction and

vision to the Meiji government and the Japanese people. This article shows that Hukujawa has a “pregnant” idea of making a political criticism, in Walzer’s sense of “social criticism”: he tries to reach a local understanding appropriate to a particular society, maintaining social connection with the Meiji government and the Japanese people, while keeping a critical distance to them. Second, this article designates Hukujawa’s limit as a political critic, who played a role in the early period of the Japanese modernization: he puts a heavy emphasis on purposiveness, while not activating discussion among the political actors.

Key words: Hukujawa Yukichi, political criticism, Zizishinpou(時事新報), Meiji Restoration, Michael Walzer, social criticism